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Beavers의 Systems 모델의 유용성*

The Usefulness of Beavers Systems Model on Adolescent Adjustment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전귀연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eon, Gwee-Ye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
| III. 연구 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Beavers Systems Model on adolescent adjustment. For this study, adolescents' perceptions of family health/competence, family style, and adolescent adjustment were utilized. The 443 subject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the city of Taegu.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SFI I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Depression Scale, Self-Esteem Scale, and Delinquency Scale.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MANOVA, and Scheffe test were conducted for the data analysi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findings was as follow: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anxiety, depression, global self-esteem, social-peer self esteem, property predatory behaviors and school-norm avoidant behaviors by the family functioning types of BSM. Therefore the group classification by BSM was generally useful in evaluating adolescent adjustment.

* 본 연구는 '96년도 경북대학교 공모과제 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지난 20년간 가족이론과 가족치료 문헌에서 가족 기능에 대한 몇가지의 모델이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모델들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된 차원 뿐 아니라 건전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차원을 개념화한다. 그 중 1980년대에 가족치료 문헌에서 우세하게 중요한 두개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가족기능에 관한 Beavers의 Systems Model(BSM)과 Olson의 Circumplex Model(OCM)이다. 이 두 모델은 가족기능에 관한 중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분류하기 위한 유형론을 제공한다.

각각의 모델은 가족기능에 관한 두가지 중요한 요인을 확인했는데 하나는 관계요인(relationship factor)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 혹은 적응성요인(change 또는 adaptability factor)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모델은 유사개념을 이용한 동등 모델로 보여졌다(Beavers & Voeller, 1983; Olson, Russel, & Sprenkle, 1983). 그러나 두 모델간의 관련성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인 탐색연구는 이 두개의 모델이 가족기능의 다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Green, Kolevzon, & Vosler, 1985; Hampson, Beavers, & Hulgus, 1988).

한편 가족체계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OCM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연구는 일부되어 왔으나 BSM에 대한 연구는 전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CM에 대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OCM이 국내 가족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OCM과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 BSM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부분의 가족이 정상적이며, Beavers 등이 제안한 가족건강/역량과 가족양식의 개념이 모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적 내용이므로 일반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BSM과 청소년 자녀의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자녀에 바람직한 가족기능의 수준을 밝히고, 가족체계 유형별로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자녀의 적응정도를 가족체계

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녀가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의 유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Beavers의 Systems Model의 이론적 개발

Beavers의 Systems Model(BSM)은 Beavers와 그의 동료들이 일반체계이론을 가족생활에 임상적 연구적용을 하여 연역적으로 개발되었다. 초기에 이 모델은 청소년의 정신분열증과 그들 가족원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Beavers, Blumberg, Timken, & Weiner, 1965). 해를 거듭하면서 건강하고 잘 적응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 뿐 아니라 정신분열적이고 신경성적 문제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연구했다(Lewis, Beavers, Gossett, & Phillips, 1976; Beavers, 1977; Kelsey-Smith & Beavers, 1981; Beavers, 1981).

BSM은 Bertalanffy(1969)의 일반적 체제이론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가족은 물론 개인을 포함하는 모든 생활체제는 혼란스러운 역기능적 체제에서 엄격한 통제지향적 체제로, 보다 자율적이고 융통성있고 적응적인 체제 즉, 역량이 있는 체제로 나아간다"는 가정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BSM의 주요한 차원은, '가족 역량(family competence)'에 대한 개념이다. 이 차원은 가족의 구조, 유연성 및 역량을 다루고 있다. Beavers(1977)는 이 차원이 직선적이고 무한하다고 가정했다.

Beavers와 Voeller(1983)는 "가족이 보다 융통성있고 적응적일수록 보다 더 조정가능하고 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며 기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역량이 있는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분화(differentiation)를 더욱 격려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적응력(즉, 변화)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가정한 Olson의 Circumplex Model

과 대조적으로 Beavers는 가족적응력의 무한한 연속체를 가정했다.

BSM의 두번째 차원은 Beavers(1977)가 가족 양식(family style)이라 명명한 관계적 차원이다. 이 차원은 외부세계와 관련해서 가족이 가지는 패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Erikson(1963)에 의해 개발되어 Stierlin(1974)이 가출 청소년을 다룬 연구에서 활용한 구심성 가족상호작용과 원심성 가족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다. 구심성 가족은 외부세계보다는 가족내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는 반면, 원심성의 가족은 가족내부에서 보다 외부세계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얻는다. Beavers(Beavers, 1977; Beavers & Voeller, 1983)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은 극단적으로 원심적이거나 구심적이지 않는 형태 즉, 균형적인 가족양식을 가진다.

직선적이고 수평적 차원으로 가족건강/역량요인을, 곡선적이고 수직적인 차원으로 가족양식의 요인을 활용하여 BSM은 아홉가지 가족유형의 가족체계를 도식화했다.

Beaver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가족유형을 임상적으로 규정하여 표현했다(Beavers, 1977, 1981; Lewis et al., 1976; Beavers & Voeller, 1983). 부모나 자녀들의 개인적 기능에 대한 언급없이 현존의 가족체계를 묘사한 Olson과는 달리 Beavers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기능을 묘사했다. 9가지 가족유형은 가족기능 및 역기능의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가족체계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유형은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y)”으로 ‘최적의 가족(optimal family)’과 ‘적절한 가족(adequate family)’ 유형이 이에 속한다. 건강한 가족은 최적으로 혹은 적절하게 기능하며 가족구성원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의 겪지 않는다.

두번째 유형은 “중간범위 가족(midrange family)”으로 가족 역량차원에서는 중간수준에 속하는 가족으로 가족양식의 수준에 따라 ‘중간범위의 구심성가족(mid-range centripetal family)’, ‘중간범위의 원심성가족(mid-range centrifugal family)’ 및 ‘중간범위의 혼합가족(mid-range mixed family)’의 세유형이 이에 속

한다. 이 유형의 자녀는 가벼운 행동장애와 신경증적인 증세를 보인다.

세번째 유형은 “경계선상의 가족(borderline family)”으로 가족 양식의 수준에 따라 ‘경계선상의 구심성가족(borderline centripetal family)’과 ‘경계선상의 원심성가족(borderline centrifugal family)’으로 나누어진다. 경계선상의 가족은 가족내에서 안정되고 통제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확립하는 데 중간범위의 가족들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보다 더 혼란적이고 지배/복종의 패턴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가족구성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의식이나 통찰이 거의 없으며 이 유형의 자녀는 불안정한 성격혼란을 겪거나 강박관념이나 식욕부진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유형은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severely disturbed family)”으로 가족건강/역량 차원에서 가장 낮다. 가족양식 수준에 따라 ‘심하게 혼란스러운 구심성가족(severely disturbed centripetal family)’과 ‘심하게 혼란스러운 원심성가족(severely disturbed centrifugal family)’이 이 유형에 속한다.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은 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눈에 띄게 부족한 특징을 가진다. 가족구성원은 주의깊은 관심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갈등 해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어떤 가족 구성원도 명백한 권력을 내보이지 않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은밀하고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독특한 거리두기’가 발생한다. 이것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만남이 배제되며 자녀들은 가끔 정신 분열증이나 반사회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2. Beavers의 Systems Model의 경험적 지지

임상적 집단에 Beavers의 Systems Model의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최초의 연구는 Beavers, Blumberg, Timken과 Weiner(1965)에 의해 이루어졌다. Beavers 등이 입원환자 중 9명의 정신분열증 환자와 정신분열증이 아닌 정신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내의 의사소통의 과정에 대해 연구한 결과, 비록 두 집단이 정서적으로 심하게 혼란스러울지라도 정신분열증환

자의 어머니와 비정신분열증 환자의 어머니사이에는 대화형태에 분명한 차이점이 밝혀졌다. 어머니의 반응을 명확함, 회피, 변동으로 구분한 결과, 이 중 정신분열증 환자의 어머니는 명확한 응답은 극히 적게 했으며 회피와 변동에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스트레스와 가족구조간의 관계를 연구한 Anthony (1970)는 BSM을 지지했다. Anthony는 정신질환이나 육체적 질환을 가진 부모로 인하여 심각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가족구조는 융통적인데서 경직적 구조로 그리고 혼란된 구조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Lewis(1986)는 이러한 사실을 Beavers의 Systems Model에 대한 지지결과로 해석했다. 가족의 구조는 혼란적 구조에서 경직적 구조로, 그리고 융통적인 구조로 진행되는데 심한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가족의 구조의 진행은 역전된다고 한다.

Beavers, Hampson, Hulgus와 Beavers(1986)는 지체아가 있는 40개의 가족을 조사하여 가족구조와 기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다. 가족건강/역량과 가족양식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건강한 가족(22개), 중간범위 가족(10개), 경계선상의 가족(9개)으로 나누었다. 건강한 가족은 매우 기능적인 가족으로 두 부모상이 확립되어 있다. 부부간에는 공동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역량이 있으며 가치있다고 서로 느꼈다. 이러한 가족내의 부모들은 자녀의 한계를 수용하거나 자극하며, 지체자녀는 물론 다른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에 균형을 이루고 자신의 요구를 추구할 시간도 가진다. 또한 지체아의 형제들에게 성취력과 지도력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양육적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가족내에서 지체아의 요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 보다 더 잘 기능하는 가족은 지체아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올바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조적으로 중간범위의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은 공동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가족은 지체아의 요구를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거나 지체아를 돌보는 가족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자녀를 동등하게 다룬다고 말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지체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보낸다.

중간범위의 가족은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해야 한다", "의무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기능적인 가족보다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끊임없이 자녀문제에 대한 '이유'와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빈약한 갈등해결 능력을 가진다.

'경계선상의 역기능적 가족'은 지체아의 행동을 돕거나 통제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성공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고통스럽게 계속한다. 그들은 불가능한 업무를 맡았으며, 그것을 잘하지 못하리라고 느낀다. 가족의 상호작용내에는 좌절과 절망의 감정이 숨어있으며, 지체아는 부모의 해결 안된 욕구나 갈등의 대상이 되거나 투사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다. 또한 역기능의 가족은 자녀의 장애가 영원하리라는 것을 부인하고, 지체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심술'이나 '정신적 질병' 등의 다른 원인으로 돌리기 때문에 지체아에게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훈육을 사용한다.

이러한 Beavers 등의 연구(1986) 결과는 "역량있는 가족은 각 개인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분리와 연결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생의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적응한다는 가설"을 임상적으로 지지했다.

Green 등(1985)은 Virginia 교정국의 보호하에 있는 비행자녀를 둔 157개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호작용과 가족기능에 대한 지각을 연구했다. 이들 비행자녀 중 25%는 습격이나 강도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44%는 공공물의 오손, 약물이나 알콜 과용, 파괴등의 비교적 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19%는 지위 위반자이거나 보호관찰 사건이며 12%는 범법행위가 심리중인 경우였다. 부모와 자녀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역량에 대한 평가 결과와 구조화된 가족의 상호작용 과업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평가의 결과가 Beavers의 Systems Model에서의 위치와 일치했다. 연구대상이 된 가족의 역량은 Beavers 등(1965)이 연구한 정신병 자녀를 둔 가족들보다는 높지만 Lewis 등(1976)이 비임상적이거나 건강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낮았다.

BSM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는 Hampson, Beavers와 Hulgus(1988)에 의한 것이다. 자기보고척도인 Beavers의 SFI(Self-report Family Inventory)를 이용하여 정신병용급실에서 진단받은 46명의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이중 기질적 장애(1명)와 불규칙한 불안증(1명)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은 '건강한 가족'으로 분류된 반면, 적응장애(7명)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은 '중간범위 가족'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우울증(6명), 조울증(8명), 자기학대증(7명)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은 '경계선상의 가족'으로, 알콜중독증과 불규칙한 정신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은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으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비록 표본대상의 수가 적지만 유형별로 분류된 가족이 BSM상의 예상된 위치에 해당되는 가족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BSM에 임상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Beavers의 Systems Model의 기본적 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즉, 가족건강/역량수준이 높은 가족유형이 인생의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불행한 가족 구성원이 더 적은 반면, 가족건강/역량수준이 낮은 가족유형은 혼란된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BSM의 공인타당도와 준거타당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BSM을 임상적 모집단에 적용했을 때 나타난 결과에 의해 얻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Beavers등이 제안한 가족건강/역량과 가족양식의 개념이 모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적 내용임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BSM의 유용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중고등학교의 남녀학생들은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시를 7개구로 나눈후 난수표를 사용하여 3개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개구에서 남녀 중학교 각1개교씩을 무선표집하였고, 선정된 각 학교의 2학년에서 한 한급씩을 무작위 추출하

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전체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걸쳐 표집된 학생은 521명이었고,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자료처리의 대상으로 포함된 학생은 443명(남:231명 여:212명)이었다.

2. 측정도구

질문지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질문과 가족건강/역량 및 가족 양식에 관한 척도,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족건강/역량 및 가족양식 척도

가족건강/역량 및 가족양식에 대한 평가는 Beavers, Hampson 및 Hulgus(1990)가 개발한 가족에 대한 자기보고 척도(Self-report Family Inventory II:SFI II)를 연구목적에 맞게 변안하였다. SFI II는 BSM상의 가족체계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2개요인 및 가족기능과 관련된 다른 3개요인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36항목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가족건강/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19개문항, 가족양식은 5개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SFI II에 대한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84-.88범위 내에 있으며 1개월에서 2개월에 걸친 검사 - 재검사 신뢰도는 가족건강/역량과 가족양식에서 .87과 .70이었다고 보고되었다. SFI II와 Marlowe - Crowne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간의 상관 관계는 .03~.11범위로 대체로 낮다(Beavers et al., 1990).

본 연구자가 가족건강/역량요인과 가족양식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1와 .18이었다. 가족양식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본 연구에서 집단분류는 가족건강/역량차원에 의한 방법을 택했다.

2) 청소년의 적응성척도

(1) 불안척도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pielberger 등(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

ity Inventory : STAI)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나누어 중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각각 15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상태불안척도와 특성불안척도에 각각 2개의 요인씩 추출되었다. 상태불안척도의 첫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변량의 40.3%를 설명하며 '현상태의 불안감'을,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0.7%를 설명하며 '현상태의 안정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역으로 계산된다.

특성불안 척도의 첫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1.9%를 설명하며 '일반적인 안정감'을,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2.1%를 설명하며 '일반적인 불안감'을 나타낸다. 역시 첫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역으로 계산된다.

상태불안척도와 특성불안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84, .77이었다.

(2) 우울척도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Faulstich 등(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Kovacs(1985)의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참고로 하여 2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번째 요인은 11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6.2%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무력감'으로 명명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6.3%를 설명하며 '외로움'으로 명명되었으며 세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변량의 5.8%를 설명하며 '무가치감'으로 명명되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82, .

78, .81이었다.

(3) 자아존중감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물론 영역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매우 간편하게 되어있다.

자아존중감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제안한대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50.6%이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8~.90이었다.

이상과 같은 척도들은 모두 Likert 5품등 척도로 구성되었다.

(4) 비행척도

먼저 청소년 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선행연구(서경숙, 1984;김경화, 1989;노성호, 1987)를 참조하여 비행의 유형과 질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어떤 행동이 비행이냐의 판단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며, 보는 집단과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인 규정과 관행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는 것은 범죄 측면에서 명백한 비행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기 학생으로서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거나 인정되는 행동으로부터 이탈된 행동성향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가능한 비행의 폭을 넓게 하여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Likert 3품등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설명변량은 53.4%이었다. 첫번째 요인은 10문항으로 전체변량의 28.1%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지위비행'으로 명명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9문항으로 전체변량의 9.6%를 설명하며 '학교규범위반비행'으로 명명되었으며 세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4.6%를 설명하며 '대인비행'으로 명명되었다. 네

번째 요인은 6문항으로 전체변량의 4.4%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재산비행'으로 명명되었다. 다섯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5%를 설명하며 '성표출비행'으로 명명되었으며 여섯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1%를 설명하며 '약물비행'으로 명명되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67-.87이었다.

3.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5년 5월29부터 6월5일까지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했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995년 7월3일에서 7월7일사이에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집에 의해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본 연구자가 질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하였다. 검사는 오전에 실시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질문지에는 솔직하게 성실껏 답하도록 당부하였다. 몇분간 실시한 후 모든 학생이 다했을 때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473부였고 이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거짓 척도 문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와 편부모 가족 및 시설아의 자료를 제외한 44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등을 산출했으며 각 척도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인 분석과 직각회전을 이용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Beavers 등

(1990)이 제안한 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MANOVA 절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Beavers 등(1990)이 제안한 SFI - II에 의해 집단을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

가족체계 유형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빈도(%)	2(0.45)	47(10.60)	265(59.81)	129(29.1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범위 가족의 수와 건강한 가족의 수가 많은 편이고 그 다음 순으로는 경계선상의 가족이었다.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은 두 가족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는 연구대상자들이 나타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연구할 때마다 표집되는 연구대상자들에 따라 집단이 달리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는 Beavers 등(1990)이 제안한 절대적인 분류방법에 의해 집단이 분류된다. 따라서 연구할 때마다 대상자들의 집단 분류가 달리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문제가족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거나 일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를 따를 때는 동일한 가족이 달리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나 BSM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이 가족체계는 동일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면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를 했으므로 당연히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의 구성비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두 가족으로 구성된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을 포함하여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다변인 변량분석 및 개

별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의의가 없으므로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을 제외한 세가지 가족체계유형을 분석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OCM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안과 우울을 종속변인으로하여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했으며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하위영역별로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불안, 우울에 대한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 F	Hypoth. DF	Error DF	P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90	10.86	4.00	874.00	.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10.8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불안, 우울에 대한 단변인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Hypoth. SS	Error SS	Hypoth. MS	Error MS	F	P
불안	9920.02	106172.60	4960.01	242.40	20.46	.00
우울	7474.76	110627.99	3737.38	252.57	14.79	.00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불안, 우울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과 우울에서 모든 집단 간에 P<.01 또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 중간범위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 순으로 불안과 우울이 낮았다.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

<표 4>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불안, 우울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집 단(평균)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불안	경계선상의 가족(105.10)	5.13***	5.82***
	중간범위 가족 (93.01)		2.79**
	건강한 가족 (88.14)		-
우울	경계선상의 가족(75.68)	3.56***	5.00***
	중간범위 가족 (66.89)		3.34***
	건강한 가족 (61.27)		-

** P<.01 *** P<.001

존중감에 대해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 F	Hypoth. DF	Error DF	P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712	20.07	8.00	870.00	.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20.07,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및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가 없었다. 유의한 차가 있는 변인에 대해서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체적 자아존중감에서는 건강한 가족과 다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한 가족이 중간범위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에 비해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는 경계선상의 가족과 다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계선상의 가족이 사

〈표 6〉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단변인 변량분석 결과

종 속 변 인	Hypoth. SS	Error SS	Hypoth. MS	Error MS	F	P
총체적 자아존중감	284.50	8252.05	142.25	18.84	7.55	.00
사회적 자아존중감	471.36	18125.91	235.68	41.38	5.69	.00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6528.28	17772.80	3264.14	40.57	80.44	.00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79.06	11872.03	39.53	27.10	1.45	.23

〈표 7〉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집 단(평균)	중간범위	건강한 가족
총체적 자아존중감	경계선상의 가족(17.76)	1.80	3.30***
	중간범위 가족 (18.97)	-	3.02**
	건강한 가족 (20.36)	-	-
사회적 자아존중감	경계선상의 가족(25.68)	2.48*	3.29***
	중간범위 가족 (28.24)	-	1.67
	건강한 가족 (29.37)	-	-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경계선상의 가족(19.63)	6.31***	11.59**
	중간범위 가족 (27.18)	-	*
	건강한 가족 (32.87)	-	8.57***

* p<.05 ** P<.01 *** P<.001

회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모든 집단 간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계선상의 가족,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순으로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1.94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표 8〉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 DF	Error DF	P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94	1.94	12.0	866.0	.02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단변인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Hypoth. SS	Error SS	Hypoth. MS	Error MS	F	P
지위비행	36.28	7825.85	18.14	17.86	1.01	.36
재산비행	34.34	1302.75	17.17	2.97	5.77	.00
성표출비행	2.60	1268.95	1.30	2.89	.44	.63
약물비행	.90	463.62	.45	1.05	.42	.65
대인비행	3.90	1350.98	1.95	3.08	.63	.53
학교규범위반비행	70.21	4860.00	35.10	11.09	3.16	.04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재산비행과 학교규범위반 비행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지위 비행, 성표출 비행, 약물 비행 및 대인 비행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차가 있는 변인에 대해서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 비행에서는 건강한 가족과 다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한 가족의 청소년들이 중간범위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재산 비행 정도가 낮았다. 학교규범위반 비행에서는 건강한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 간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강한 가족의 청소년들이 경계선상의 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규범위반 비행의 정도가 낮았다.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

〈표 10〉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집 단(평균)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재산 비행	경계선상의 가족(7.63)	1.01	2.82**
	중간범위 가족 (7.34)	-	3.23***
	건강한 가족 (6.80)	-	-
학교규범 위반비행	경계선상의 가족(15.95)	1.45	2.56*
	중간범위 가족 (15.16)	-	1.64
	건강한 가족 (14.58)	-	-

* p<.05 ** P<.01 *** P<.001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불안, 우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재산 비행, 학교규범위반 비행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FI II에 의한 건강/역량 수준이 높은 건강한 가족의 청소년들이 경계선상의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불안과 우울 정도가 낮았고 총체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재산 비행 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적응을 보다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과 우울,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모든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한 가족, 중간범위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 순으로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 정도가 낮았으며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재산 비행에서는 경계선상의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의 청소년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건강한 가족과 다른 가족 집단과는 차이가 있었다. 건강한 가족의 청소년들이 경계선상의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높았으며 재산 비행 정도는 낮았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중간범위 가족과 건강한 가족의 청소년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경계선상의 가족과 다른 가족 집단의 청소년들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경계선상의 가족의 청소년들이 중간범위 가족과 건강한 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학교규범위반 비행에 있어서는 경계선상의 가족과 건강한 가족의 청소년들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경계선상의 가족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규범위반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BSM의 가족건강/역량차원에 의한 집단 분류는 청소년의 적응 정도를 밝히는 데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의 유용성을 검증해보아 국내에서 BSM 모델이 청소년자녀의 적응을 예견하는데 유용한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은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443명이었고 사용된 도구는 가족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SFI II와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 및 비행척도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변량 변량분석,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불안, 우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재산비행 및 학교규범위반 비행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BSM에 의한 집단분류는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밝히는데 어느정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구시내 청소년에 제한된 점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후 요망된다.

둘째, 청소년 자녀의 지각에만 초점을 두었으므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기술하는 가족체계 유형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하여 부모와 자녀의 일치도, 지각의 차이점, 세대간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해서만 가족체계 유형을 평가했다. 그러나 관찰적 척도를 통한 가족체계 유형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네째, 본 연구는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혼가족, 편부모가족, 입양가족, 문제가족 및 임상가족 등 가족유형이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가족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가족체계 유형과 가족원들의 적응과의 관련성 및 정상가족과의 비교분석에 대한 연구를 해 보는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규준이 모두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된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행하여 우리문화에 맞는 척도 개발 및 규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가진 가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적응에 필요한 가장 바람직한 가족체계 유형이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도 건전하고 기능적인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김경화(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노성호(1986).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비행척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서경숙(1984). 부의 훈육방식 및 가정결속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5) Anthony, J. E.(1970). The impact of mental and physical illness on family lif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 138-146.
- 6) Beavers, W. 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Brunner/Mazel.
- 7) Beavers, W.R.(1981). A systems model of family for family therapis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299-307
- 8) Beavers, W. R., Blumberg, S., Timken, K. R., & Weiner, M. D.(1965). Communication patterns of mothers of schizophrenics. Family Process, 4, 95-104.
- 9) Beavers, J., Hampson, R. B., Hulgus, Y. F., & Beavers, W. R.(1986). Coping in families with a retarded child. Family Process, 24, 398-405.
- 10) Bertalanffy, L. Von.(1969). General systems theory - An overview. In W. Gray, L. Duhj & N. Rizzo, (Eds.), General Systems Theory in Psychiatry, Boston: Little Brown.
- 11) Beavers, W. R. & Voeller, M. N.(1983).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12)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13) Elder, G.H., Jr.(1980). Family Structure and Socialization, New York: Arno Press.
- 14) Faulstich, M., Carey, M.,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024-1027.
- 15) Green, R. G., Kolevzon, M.F., & Vosler, N. R. (1985). The Beavers-Timberlawn model of family

- competence and the Circumplex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385-398.
- 16) Hampson, R.B., Beavers, W.R., & Hulgus, Y.F. (1988). Commentary: Comparing the Beavers and Circumplex Model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7, 85-92.
- 17) Kelsey-Smith, M., & Beavers, W. R.(1981). Family assessment: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amily system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3-12.
- 18) Kovacs, M.(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 19) Lewis, J.M., Beavers, W.R., Gossett, J.T., & Phillips, V.A.(1976). *No Single Th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 York: Brunner/Mazel.
- 20) Olson, D.H.(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roma(Ed.), *Normal Family Processes*(PP.104-136). NY/London: The Guilford Press.
- 21)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 3-28.
- 22) Spielberger, C.D., Gorsuch, R.L., & Lushene, R.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23) Stierlin, H.(1974).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New York: Quadrangle.